

2024년 4월

12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임현식 : 안녕하세요! 이번 호엔 23년 1학기와 여름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밌게 읽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민정 : 편집팀장으로서 뿌듯한 차팜인 11호입니다!

최우혁 : 앞으로도 차팜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김소정 : 차팜인 여름호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이소연 :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진 차팜인, 재밌게 읽어주세요 ♥

채지은 : 차팜인 사랑해요 💕💕

김동현 : 이번 호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재밌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현승 : 안녕하세요 20학번 목현승입니다. 첫 기사라 차약 학우분들께 잘 읽힐지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입니다 잘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신선 : 이번 호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팜인 부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신은서 : 차팜인 2팀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첫 기사를 무사히 작성했습니다.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안지우 : 안녕하세요! 여름호 차팜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ㅎㅎ 벌써 2023년도 절반이 흘렀네요. 하반기도 알찬 차약이 생활 즐겨봐요♥

오승범 : 올해 상반기 즐거웠던 추억과 소중한 경험을 기사로 담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오채현 : 차약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담은 차팜인 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도 재미있게 읽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가영 : 첫 차팜인 참여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호엔 더 발전하겠습니다!

이현영 : 안녕하세요! 무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네요. 가을 또한 차약이들에게 즐거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혜림 : 기자분들 열심히 쓰셨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편집팀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임현식 (약학과 19), dkfnek789@naver.com

편집팀

김민정 (약학과 19), **최우혁** (약학과 19), **신선** (약학과 22),

이가영 (약학과 21), **조혜림** (약학과 22)

취재팀

임현식 (약학과 19), **김소정** (약학과 19), **목현승** (약학과 20), **오승범** (약학과 21)

채지은 (약학과 19), **안지우** (약학과 20), **신은서** (약학과 23)

이소연 (약학과 19), **이현영** (약학과 20), **김동현** (약학과 22), **오채현** (약학과 23)

발행회차

2023년 12호

퍼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신임 교수님 인터뷰 기사

03
총 MT

04
차팜데이, 화코스 + 인터뷰노트

05
댄스 페스티벌

06
복학생 인터뷰

07
해외여행기

08
송우미식회 (맛집 소개)

09
포천 옆동네 소개글

10
차플리

11
차약이 앙케이트

12
팜파라치

13
차약인의 서재

14
차튼 토마토

15
2024 계획 (소원나무)

차팜사이 만난 사람

임채민•안홍찬 교수님

2023년도 올해 차 의과학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된 교수님 두 분이 있다. 아직 수업에서 교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신입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차팜인에서 담아보았다.

우리 약학과의 새로운 가족이 된 '임채민' 교수님



임채민 교수님

▶ **약학과의 새로운 교수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부임하신 교수님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임채민 교수님에 대해 궁금해 할텐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물리약학 전공 교수로 부임한 임채민입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졸업 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에서 물리약학 (Drug delivery)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새로운 DDS platform 제형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실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차 의과학대학교의 신입 교수님이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교수가 되어 첫 학기가 지났습니다. 우선 한 학기동안 잘 따라와 준 2, 3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교수의 핵심 직무는 교육과 연구인만큼 임용이 확정된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교육 및 연구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차 의과학대학교에 와서 똑똑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을 만나고 나니 함께 성장해 나갈 모습이 그려지며 설렙니다.

▶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물리약학', '약물전달학'인데요, 이중에서도 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나요? 교수님의 연구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DDS (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활성약물성분) 들의 제형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으로, 약물의 효과적인 전달 방식과 약물 형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Lipid 및 polymer 들을 이용해서 Small molecule, gene, peptide 들의 제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만, 한때는 교수님께서도 학부생, 대학원생이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교수님의 대학생활이 궁금합니다.**

학생 시절 저는 이런저런 것에 관심이 많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약대 졸업 후 뭘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회사에서 인턴활동, 실험실 인턴, 그리고 약대 연합 동아리 활동 등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시절의 경우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연구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더 즐겁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대 내에서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팍사이 만난 사람

-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수님의 올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또는 교수 생활을 하시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임용이 되고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실험실 세팅을 하며 앞으로 진행할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면 수십 년간 종사하게 될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자이자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목표는 제형 연구 등을 통해 여러 개의 기술이전 혹은 제품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면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시절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우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변 지인분들 및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기 및 방학 동안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쌓아 경쟁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의 전문가로서 약국, 병원, 제약 회사, 연구소 등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의 새 가족, '안홍찬' 교수님



안홍찬 교수님

- 약학과의 새로운 교수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부임하신 교수님으로서 많은 학생이 안홍찬 교수님에 대해 궁금해할 텐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품화학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안홍찬이라고 합니다. 첫 학기에는 2학년 유기약화학과 3학년 의약품제조화학 강의를 맡았고, 실습수업도 2, 3학년 학생들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수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저는 2008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2014년에 약품 제조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년 정도 국내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플로리다의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 Scripps Florida에서 조합 화학, 화학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 개발지원센터 의약화학부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하던 중 좋은 인연이 되어 차의과학대학교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구 신약센터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신약개발 연구를 하면서 연구원들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위나 양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구 신약센터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여 직능에 충실한 약사, 신약

차팜사이 만난 사람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학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교원으로서의 새출발을 결심하였습니다.

➤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약품 제조화학'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나요? 교수님의 연구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약품 제조화학'은 우리가 합성하고자 하는 의약품 또는 유효/선도물질을 효과적으로 합성할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적화된 합성법을 바탕으로 초기 화합물을 확보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리활성을 증가시키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후속 화합물을 도출하는 것은 '의약화학'입니다. 저의 주 연구분야는 '의약화학'과 '약품제조화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피부 색소 조절을 통한 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의 개발, 해양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치매 치료제 연구, 안과용 유전자 치료제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저분자 화합물의 개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해당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규 합성 방법론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만, 한때는 교수님께서도 학생, 대학원생이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교수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학부생 때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 3학년 1학기까지는 약대 내 동아리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야구부에서는 교내 리그에 참가하여 여름 방학 내내 땀방아 아래에서 야구 경기를 하였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노래패 활동도 열심히 하였는데 정당한 세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토론도 하고, 또 일년에 몇 차례 공연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원생 때는 다른 학생들이 그러하듯 실험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특히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유기화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 생활을 통해서 작은 사회를 경험한 것도 저의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짧은 기간이지만 캠퍼스에서 수업하며 학생들을 마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신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는 합니다. 특히 실습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제 학부생 시절도 떠오르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총 엠티나 축제, 차팜데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하여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지난 학기였습니다.

➤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수님의 올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또는 교수 생활을 하시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2023년 올해는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된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실에서는 교과목의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교실 밖에서는 즐거움도 나누고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하는 따뜻한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면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약과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일부 교과목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다음 학년에 이어지는 심화 과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충실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교과목 한두 개를 찾아 공부의 재미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틀에 박힌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점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로 주변의 친구들과 학업 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겨 내기도 하면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해져요~



약항대학 총MT



2023.09.22 ~ 09.23

출발해요



2023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학우들은 총 MT에 참여하여 결속력을 다지고 약학도로서의 사명감을 드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오늘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한 이번 행사 또한 학우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 덕에 다친 학우들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바쁘게 실습 중인 6학년 학우들을 제외하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총 154명의 학우가 참여하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총 MT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6년제로 개편된 이후 학우들이 많아진 만큼 모르는 얼굴들도 많아진 상황에, 총 MT를 통해서 더욱 돈독한 선후배 간의 정을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학년 간 친목을 도모하는 총 MT의 의미를 살리고자, 학년별로 골고루 섞어 조를 배정하였다. 저녁 먹기 전과 후로 나누어 릴레이 탁구공, 물 따라 바람 따라, 초성 퀴즈, 동그라미 이어달리기를 비롯하여 여러 게임을 진행하였다. 총 MT가 진행된 이날, 날씨가 좋아 물 따라 바람 따라 등 야외 게임에 참여한 학우들의 밝은 표정이 더욱 돋보였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규칙 준수와 참여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

저녁시간과 그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조별끼리 숯불에 둘러앉아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 먹었다.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가까워진 조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된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남은 게임을 조원들과 진행하며 하하 호호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결과에 따라 조별 우승 상품을 수령한 후, 조원들끼리 모여 학교생활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각자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같이하는 선후배들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소감 한마디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다. 또 오고 싶으며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완성도 높으면서도 창의적인 게임에 임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다양한 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으며 편한 분위기 속에서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학생회에서 준비해 준 게임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다 같이 재미있는 추억을 만든 거 같아서 너무 좋았다.

새로운 선후배님들과 친해지고 동기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여러 선후배님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안홍찬 교수님과 맥주를 마시면서 유기화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에 남네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학우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
밤에 동기들과 함께 보는 밤하늘도 감동적이었다.

차팜데이 & 화이트코트세레머니

2024년도

이소연기자



▲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는 임하정(19), 장세용(19)

지난 11월 3일 차 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8회 차팜데이와 5학년 학생들의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행사가 진행되었다. 약학과 1~5학년 학생들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교수님들과 포천시 약사회장님 등 많은 분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1부와 2부, 3부로 총 세 타임으로 나누어 오전 수업이 끝난 1시부터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장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남시 약사회장님과 포천시 약사회장님, 성남시 약사회장님이 축사를 진행해 주셨다. 이후, 19학번 학생들의 3년 동안 포천에서 보낸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다 함께 웃으면서 시청했으며 연이어 화이트코트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는 1년간의 현장 실무 실습을 앞두고 약국, 제약회사, 병원 등에서 기초 약사업무를 익히게 될 5학년 학생들의 화이트가운 수여식과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약학 전문가로 나아가고자 충실히 실습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부의 마지막 시간으로 후배들 혹은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다 같이 전 학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기 및 선후배들이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말들을 아낌없이 전했다.



▲ 손우성 전 교수님의 특별 강연

2부를 시작하며 학과 소식지인 차팜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난 여름 미국 약학 교육 프로그램인 USC에 참여한 학생들이 발표를, 약학연구입문 활동, 학술 포스터 시상, 손우성 전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마지막으로 2부를 끝마쳤다. 학술 포스터를 시상한 19학번 이민영 학우는 “짧다면 짧은 방학 동안 교수님, 선배님, 동기와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뿌듯했던 경험이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3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최고운 선배님의 인터뷰와 김애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안성현 선배님의 인터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 대신 소책자로 대체되었다. 대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연구실 선택 계기, 가장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대학원 이후의 나아갈 진로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들이 달려있었다.

행사를 마치며 학과 밴드동아리 Achappy와 기독교 동아리인 하늘소망,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차츰버, 댄스 동아리인 요약정리가 축하 공연을 진행해 더욱 더 자리를 빛내 주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경품 추첨의 시간을 통해 많은 학우가 고루고루 경품을 증정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하늘소망 공연을 진행하는 신비(20), 김지우(19)

실습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의미 깊은 행사가 있어 영광이었고 축하해주신 많은 학우분,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9학번 김소정 학우 -



전 학년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 중에는 거의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하기 전부터 마음이 헛헛하면서도 이제 끝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과에 공연할 수 있는 동아리는 많은데 선보일 기회가 적어 많은 동아리에 공연을 부탁했는데 다들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언제나 행사에 열심히 일해주신 CHA愛 학생회에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9학번 선배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6학년 1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약사가 되길 바란다는 말까지 전하고 싶습니다.

- 20학번 목현승 학우 -

DANCE PHARM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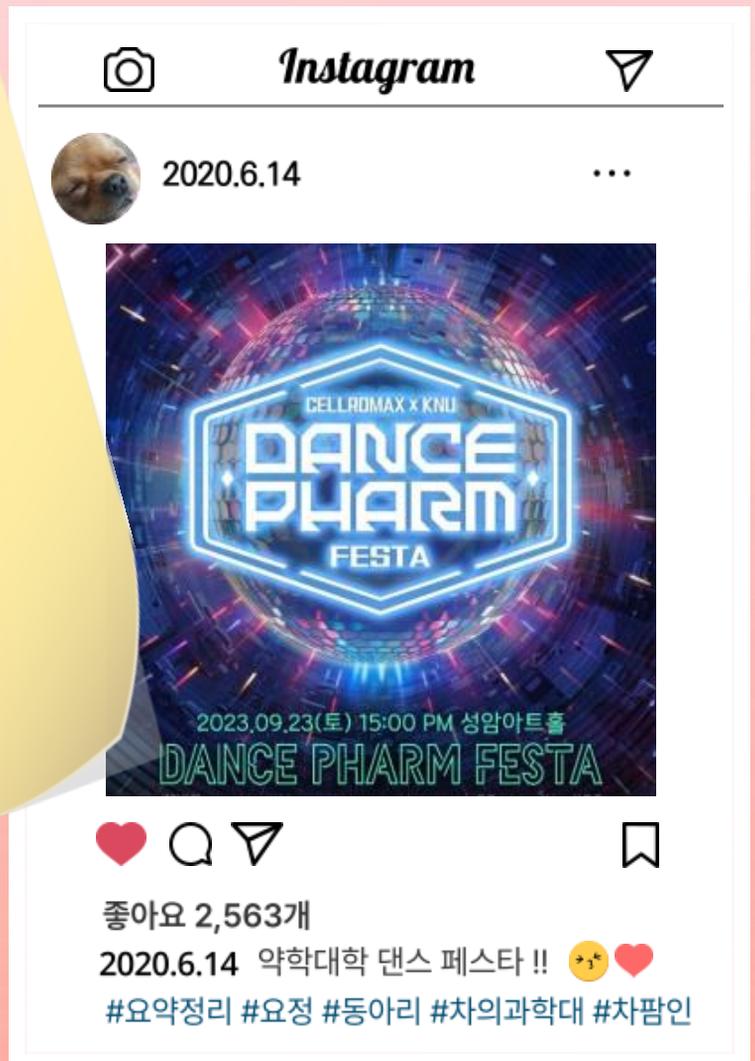
지난 9월 23일 전국약대생댄스페스티벌 팜페스타(이하 전댄페)에 다녀왔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 우리 학교 약학대학 댄스동아리
요약정리(이하 요정)의 멤버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학년 배지수 목현승, 3학년 송인석 이지선 방예진 유수진 이승우, 2학년 최우혁,
1학년 나하영 이지은 정승원 안민욱의 총 12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가했다.

1부
Hot&Cold - 카리나, 슬기,
제노, 카이
마지막처럼 - 블랙핑크
Fiction - 비스트

2부
머니 - 리사
에너지틱 - 워너원





Instagram



작년 5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방학 때부터 준비했는데, 다들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방학 때라서 만나서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픽션 연습을 위해 처음 만났을 때, 쉬워 보였던 시그니처 춤도 어려워서 째짤했던 것이 생각난다. 다리랑 발목이랑 발이 어찌나 따로 놀던지 그냥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방학에는 남자만으로 구성된 무대, 여자만으로 구성된 무대를 따로 준비하느라 다른 무대는 못 본 채 개강을 맞이했다. 개강 후에 다른 멤버들이 추는 걸 보고 조금 놀랐다. 잘 추는 사람이 꽤 있는 건 알았지만 다들 너무 잘해서 나만 못 추는 게 너무 잘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공강이나 수업이 끝난 후 다들 연습실에 모여 연습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하는 순간엔 뭔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재밌었다. (물론 나 빼고 다들 20대 초반이 맞긴 하다.) 사실 우리 학교 총연티가 9월 22일-23일이 된 탓에 12명 모두 엠티 갔다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행사 장소로 이동해야 해서 다들 힘들고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엄청난 거대한 전광판, 의상과 화장에 진심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잘못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0.6.14
My Place >



셀로맥스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DOPE가 주최하는 전국 최초의 약학대학 댄스 페스타 ~~~!!

2023.09.23 성암아트홀 DANCE PHARM FESTA !!

#준비하면서 #목현승 #요약정리 #요정 #차의과학대 #차팜인



좋아요 1,789개

1시간 전



Instagram



2020.6.14
My Place >



픽션 무대에서는 초반에 너무 긴장해서 음악을 못듣고 반박자 빨리 추다가 갑자기 노래가 들리는 바람에 겨우 다른 멤버들과 맞춰서 다시 출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친듯이 부끄럽다. 그래도 나 스스로도 그동안 준비했던 무대를 끝까지 마쳤다는 데서 큰 뿌듯함을 느꼈고, 내가 올라가지 않은 에너제틱이나 다른 무대에서는 소리쳐서 응원도 하고, 함께 고생한 멤버들 무대영상도 직접 찍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는 느낌이 든다.

#본무대 #목현승 #요약정리 #요정 #차의과학대 #차팜인



좋아요 1,789개

1시간 전





Instagram



2020.6.14

My Place >



배지수 송인석 이지선 방예진 유수진 이승우, 최우혁 나하영 이지은 정승원 안민욱 여러분 벌써 반년 전 일이다 됐지만, 그때 정말 고생 많았고 즐거웠다는 얘기 한번 더 전할게 ~ 개강하고 밥 한번 먹자~~~

#소감 #목현승 #요약정리 #요정 #차의과학대 #차팍인



좋아요 1,789개

1시간 전



Instagram



2020.6.14

My Place >



좋은 기회로 "제1회"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격스러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걸 두고두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해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동아리장으로서 부담감이 컸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동아리 부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

마치 궁극의 아이들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전뎀페 올해에도 하게 된다면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

#소감 #배지수 #이승우 #요약정리 #요정 #차의과학대 #차팍인



좋아요 1,789개

1시간 전



목현승 기자

이번 복학생을 부탁해

: 복학생 4인 인터뷰

오승범기자



남궁원
/19

Q. 먼저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게 된 19학번 남궁원이라고 합니다.

Q. 다시 학교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군 복무라는 특성상 휴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와서 기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기대됩니다.

Q.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동기들과 하고 싶은 것

A.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같이 지내게 될 미래의 동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일생에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인 만큼 즐겁게 지내면서 많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욱
/19

Q. 먼저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복학생 19학번 박병욱입니다! 20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Q. 다시 학교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계속 일을 하고 있어 복학한다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취방을 알아보려고 3006을 타고 포천에 내리니 그제야 복학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먼 거리를 제외하고는 교수님과 동기도 경치도 완벽한 포천입니다.

Q. 1년 정도 학교생활을 하고, 휴학하게 되었는데 휴학 전후로 바뀐 점이 있다면?

A. 확실히 휴학하기 전과는 다르게 학업에 좀 더 열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복학하고 나니 이전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먼저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19학번 순정남 손정호입니다~^^.

Q. 다시 학교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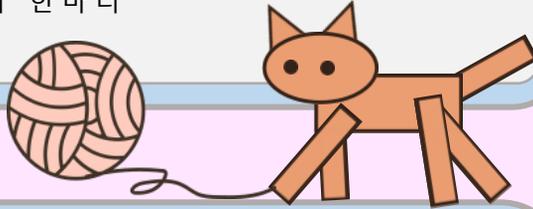
A. 군 복무라는 특성상 휴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와서 기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기대됩니다.

Q. 선배 복학생으로서, 매력적인 복학생이 되는 꿀팁

A. 6시 기상, 이불 정리, 공복 유산소 후 웨이트 트레이닝 한 시간, 수업 자료 올라오면 예습, 걸그룹 댄스 연습, 수업 후 복습, 개인 작업, 12시 취침.

Q. 앞으로 복학할 분들에게 한마디

A. 포천 vs 재입대



Q. 먼저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내년 1학기 복학 예정인 19학번 홍준화라고 합니다. 96년생이고 남자입니다ㅎㅎ

Q. 복학하기에 앞서 기대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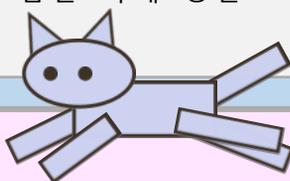
A. 제가 3학년이던 때는 학교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후배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점이 기대됩니다. 동시에 안 하던 공부를 다시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Q. 휴학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했나 소개해 주세요.

A. 12월 종강 후 거의 바로 입대해서 그전에 별로 한 일이 없네요.. 학기 중에 친구랑 같이 놀고 공부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같이 지내게 될 미래의 동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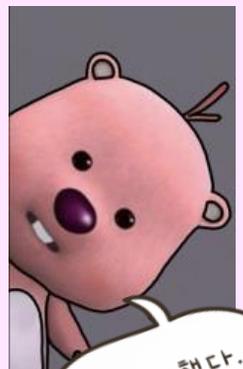
A. 반갑습니다 21학번 여러분~~ 같이 남은 약대 생활 힘내고 즐겁게 보내요!!



손정호 / 19



홍준화 / 19



행복복학했다.

차약이들의 삿포로 여행기

19학번 정윤지, 송서영,
김윤희

Q. 어디를 언제 여행하셨나요?

12/12~15일 3박 4일 삿포로에 다녀왔습니다!



Q. 삿포로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이서 화코세 영상 편집을 하다가, 더 친해지기도 했고 제가(정윤지) 삿포로를 친구들이랑 겨울에 꼭 가보고 싶었기에, 계속 삿포로 가자고 꼬드겼어요 ㅎㅎ 삿포로 가서 화코세 영상 편집하던 실력(?)으로 브이로그 만들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들진 않았습시다 ㅎㅎ)

Q. 셋이 여행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도 친하게 지냈지만, 화코세 영상 편집하면서 셋이 더 친해져서 같이 여행 가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깔깔 소녀들이라 어디든 같이 가면 즐거울 것 같았습시다 ㅎㅎ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셋이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너무 가름하고 눈은 너무 크게 외계인처럼 나와서, 찍으면서도 계속 웃고, 찍고 나서도 웃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그 사진은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Q. 여행 일정을 소개해 주세요.

첫째 날: 신치토세 공항-숙소 이동(삿포로 그랑벨 호텔)-라멘신겐(점심)-스스키노거리-크리스마스마켓-오도리 공원-다루마4.4(저녁)

둘째 날: 비에이투어

오오도리역 집합-패치워크 로드-비에이역-크리스마스트리-탁신관-청의 연못-흰 수염 폭포-닝구르테라스-하나마루(회전초밥)

셋째 날: 오타루

오타루 오르골당-르타오 본점-사와와(녹차 아이스크림)-만지로(카이센동)-기타이치 홀(카페)-오타루 운하-스프카레 킹 센트럴-토리큐(이자카야)

넷째 날: 신치토세 공항-인천 공항

Q. 가장 추천하는 장소가 있나요?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비에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삿포로를 떠올렸을 때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 비에이가 딱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에메랄드 색의 흰 수염폭포가 정말 예뻐요 비에이 투어의 거의 마지막인 곳이어서 그냥 나가지 말고 버스에서 실까 생각했었는데 안 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Q. 가장 추천하는 음식이 있나요?

"다루마"에서 먹었던 칭기즈 칸이요.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때 먹었던 생맥주가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서 같이 즐겁게 얘기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하셨던 기억이..! 세 분 다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ㅎㅎ)

Q. 삿포로 여행 꿀 Tip 알려주세요.

윤지 언니가 필름 카메라랑 토이카메라를 챙겨왔는데 겨울 삿포로의 감성이 너무 잘 담겨서 좋았어요! 필름 카메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여행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비에이 투어를 가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후반부 코스가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트리를 다 가릴 정도였어요..! 눈이 얼굴을 때리는 수준이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서, 쟈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지는 못해서 아쉽네요 ㅠㅠ 그렇지만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그 이외의 모든 일정이 너무 행복해서 괜찮았어요 ㅎㅎ

Q. 삿포로에서 이걸 꼭 사야 한다는 기념품이 있나요?

A) 오타루에 있는 르 타오 본점에서 파는 디저트들이요! 르 타오에서는 치즈 쿠키, 홍차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팔아요. 거기서 시식도 많이 했는데 시식하는 족족 샀던 저희가 기억나네요 ㅎㅎ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먹거리집

위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번길 8

대표 메뉴

순대국 (9000원)

평점 ★★★★★

송우리에서 순댓국과 수육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담백하고 얼큰한 국물이 끝내주는 순댓국은 기름기 없이 깔끔해서 느끼한 것을 잘 못 먹는 분들도 좋아하실 맛이에요. 그리고 순댓국에 순대보다는 고기와 내장이 잔뜩 들어있어요! 내장을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살코기와 순대만 주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포천에서의 강한 추위와 바람을 견디고 싶다면,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이 최고겠죠? 알코올이 땅기는 비주일이지만 낯술은 참아주세요 ㅎㅎ

뚝통

위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6
랜드프라자

대표 메뉴

짜장면(5000원), 짬뽕(7000원),
마늘탕수육(17000원)



평점 ★★★★★

두 가지 의아한 점을 안고 있는 중국집. 일단, 뚝통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집임을 유추하기 힘들었다는 점. 대부분의 중국집이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데에 반해 2층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뚝통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느꼈던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 앞에 놓은 돌사자상과 내부의 인테리어가 중국집 그 자체예요. 해산물로 깊게 우려낸 국물 맛이 일품인 짬뽕도 맛있지만, 뚝통의 시그니처 메뉴는 마늘 탕수육이죠. 술술 나는 마늘 향과 쫄득하고 바삭한 탕수육은 색다른 맛을 선사할 거예요!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제주돈가

위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88-6

대표 메뉴

기본1근(42000원), 잔치국수(4000원)

평점 ★★★★★

두껍게 썰려 나오는 목살과 오겹살을 연탄 화로 위에서 구우니 육즙이 살아있고 부드러워요. 고기 부심이 넘치시는 사장님이 맛있게 굽는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나오는 파무침, 깍두기, 깻잎, 멸치젓 등 반찬들도 하나같이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들이라 어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어요. 송우리에서 제주도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 <제주돈가> 적극 추천해요!

디저트39

위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78번길 9

대표 메뉴

오리지널 도쿄롤(5600원),

아메리카노(2900원)

평점 ★★★★★☆

달콤한 케이크와 디저트가 유혹하는 곳.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39가지의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하네요. 세계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한 번에 한나라의 디저트를 경험해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일 것 같아요!



양주 옥정 신도시 탐방기

지난 12월, 종강을 하면서 모든 차약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새로운 것들을 도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학을 맞아 요새 송우리 근교에 뜨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를 탐방하고 답사한 기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는 중앙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래 지역에는 맛집, 카페 등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방문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비된 신도시의 느낌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양주 옥정 호수공원

양주 옥정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호수공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도 잘되어 있어서 연인, 친구들이 산책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주 옥정 호수 도서관

도서관도 신도시 도서관답게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와 곳곳에 설치된 1인용 소파 및, 빈백 등이 있었고 책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종류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양주 옥정의 카페

옥정 신도시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쁜 카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옥정의 멋진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제로니모 커피 하우스

(경기 양주시 화합로1597번길 3 제로니모 커피하우스)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카페입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좌석들이 가장자리를 둘러싼 형태로 있으며 좌식, 입식 테이블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이기 때문에 다양한 베이커리 종류가 있었습니다.



▶ 아케이드커피 양주

(경기 양주시 송림로 137 아케이드커피 양주)

통창으로 야외를 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앉는 좌석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티라미수 등 디저트 종류가 꽤 있었고 맛있었습니다. 해질녘에는 통창으로 노을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시간을 맞춰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Ly

Kategorie : ♫, 연애

Fall In Love Alone(Stacey ryan 및 Ziva Magnolya)



If we never try How will we know?

Baby, how far this thing could go

Give me a sign If I'm on your mind

노래만 들어도 혼자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 같은 솔로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외로울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설레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아~ buf, 노래가 끝나면 살짝쿵 다시 외로워 진다는 점은 알고 계시길



Kategorie : ♫, 연애

그라데이션(10cm)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고 처음으로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 둘 다 떨어져 뭐 부르지~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노래를 불러줬어요! 평소에도 좋아하던 노래여서 같이 불러야지하고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길래 깜짝 놀라서 듣고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ㅎㅎ

예상도 못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제 차례가 됐을 땐 땀을 뺀뺀 흘리면서 고음 불가인 것만 들통났던 기억이 있네요 ^>^ 그때 불러준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계속 듣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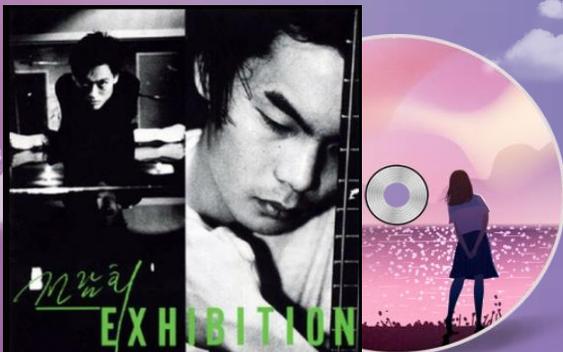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Kategorie : 새학기

기억의 습작 Etude Of Memoirs(전람회)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나에게도 영화 '건축학개론' 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에 부푼 상태로 이 노래를 들으며 첫 등교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Kategorie : 수험생활

RUNAWAY(바비)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쓰러진 날 일으켜줘
I just can't go on 날 데려가 줘
I wanna runaway

수험생 때 많이 들었어요 😞😞



Kategorie : 수험생활

Adventure of a Lifetime(Coldplay)

Turn your magic on
To me, she'd say
Everything you want's a dream away
Under this pressure, under this weight

처음 들을 때부터 기타랑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가사도 좋아서 최애 곡이
되었습니다 ^-^
수험생활부터 약대 시험 기간 까지,
플레이리스트에 고정으로 해놓는 곡이에요!



Kategorie : 봄

(They Long To Be) Close To You(Carpenters)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작년에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설레며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포천의 푸릇함과 잘 어울리는 따뜻한 곡이에요.
다들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길 바라며 이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차약 앙케이트



1. 집에서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동기는?



1학년 손은서 (33%)

딩글...~



2학년 전덕룡 (23%)

이불 밖은 위험해...
방학이라 아직 행복합니다 ㅎㅎ



3학년 홍한나 (50%)

집에서 할게 참 많아요... ㅎㅎ



4학년 양상오 (50%)

근데 이불 밖은 위험해요...
넌 추워...



5학년 김예안 (31%)

집 가고 싶다



1학년 정예원 (27%)

제가 그런 이미지인가요??

2. 속이면 가장 잘 속을 것 같은 동기는?



2학년 김동현 (46%)

속아주는 척하느라 힘드네요^^



3학년 황규현 (18%)

전 동기들을 믿으니까요~~
하하



4학년 최인영 (30%)

여러분들 믿을게요



5학년 송서영 (46%)

그거 알아?
참새는 비둘기 새끼래~

3.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울지 않을 것 같은 동기는?



1학년 조창범 (60%)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잘못된
편... (+요즘 슬픈 영화 없는 듯)



2학년 정종인 (25%)

하품 눈물이면 충분합니다.



3학년 김윤재 (27%)

칼에 찔려도 피만 나옵니다



4학년 김재현 (30%)

이재현이랑 김재현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거 ESFJ입니다. 코코 보고 밤새 울었다
구효 ㄸ 흐영 리멤버미 벌써 또 눈물 나 ㄸㄸ



5학년 김예안 (46%)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랍니다

4. 여동생 혹은 남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동기는?



1학년 심규범 (16%)

여동생이면 나이차가...
크흠



2학년 최서진 (24%)

여동생은 언제든 소개해 주세요
^^



3학년 김미행 (13%)

근데 왜 안 해죠 ㄸ ㄸ



3학년 송인석 (13%)

13%일 정도로 너무 귀엽했을 텐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학년 지수경 (33%)

동기들아 고맙고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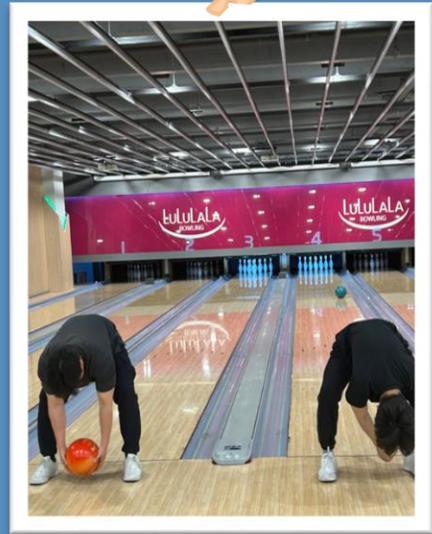


5학년 임소연 (19%)

좋게 봐준 동기들 감사해욤~~



공강시간에 매우 열심히(!)
 볼링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23학번 동기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차약 대표 21학번 인조 걸그룹의
 총 MT 단체 사진입니다.
 모든 멤버가 비주얼 담당이라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 MT 현장을 담은
 또 한 장의 사진입니다.
 MT를 즐기고 있는 20학번 고인물(?)
 학우분들의 모습인데요,
 황정민 배우님의 유명한 사진과 매우 비슷하다며
 함께 제보해 주셨습니다.



포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hamparazzi



차약 오케스트라 동아리 "팜상블" 학우분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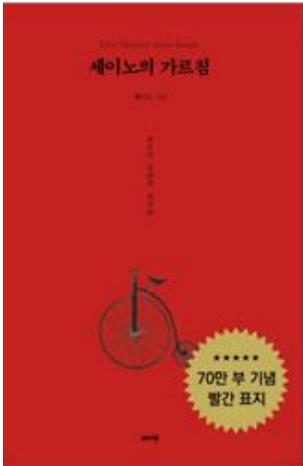


"차친프"에서 만난 인연이 2학기까지 이어져
멋진 우정을 나누고 있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1학과와 2학기에 각각 찍은 2학년 남자
학우분들의 단체사진입니다.
모두의 우정과 열정이 돋보입니다 ㅎㅎ

* 차약인의 서재 *

세이노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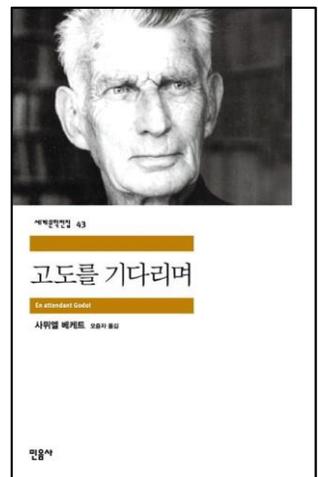


저자 세이노
출판사 데이원

우리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 계발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책 가운데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자산가인 세이노라는 사람이 카페에 올리던 글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에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자수성가한 사람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듯한 일침이 이 책의 매력이다.** 실패는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냉정하고도 거친 논조 속에서도 독자에게 자신이 본 많은 사람의 **덧없는 인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충고해 준다.** 목차를 보며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검색만 해도 pdf 파일을 찾을 수 있기에 책을 사고 읽지 않아 돈이 아까워지는 독자에게 더욱 추천한다.** 느슨해진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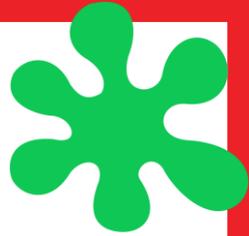
고도를 기다리며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중 하나인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한다. 이 작품은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사뮈엘 베케트 또한 자신이 고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작품에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줄거리를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두 주인공끼리의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 자체의 두께가 얇고 등장인물도 별로 없어 읽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의문만 가득 남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한 번 이상을 더 읽게 되는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작품은 **중요한 것일수록 확답을 주지 않음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만의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이다. 또한 요즘 배우 신구와 박근형이 출연하는 연극도 공연 중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길 추천한다.



저자 사뮈엘 베케트
출판사 민음사

CHAtten Tomat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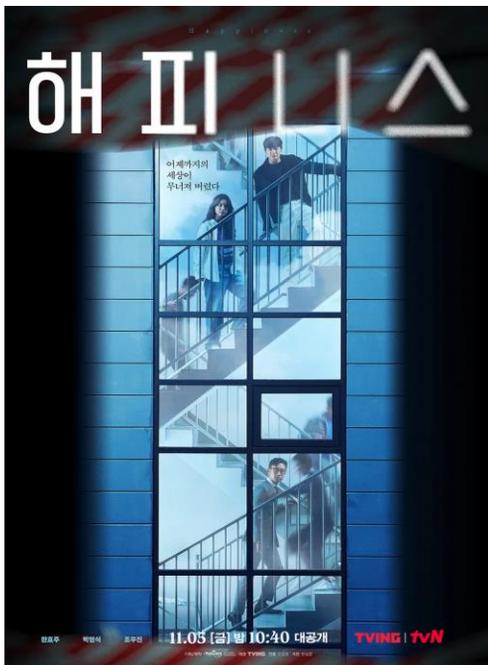
드라마/영화 추천

오승범 기자



“안녕하세요. 개강과 함께 차튼토마토도 돌아왔습니다!
원래 비교적 시간이 많은 방학 때보단 개강하고 바빠지면서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더 많아지는 건 저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을 위해 OTT 플랫폼에서 재미있게 보았던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해피니스 (2021, NETFLIX & T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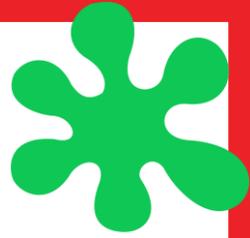
“광인병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기심”

(좀비, 스릴러, 재난)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겪은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드라마 '해피니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라는 장소에 고립되어 계층 간 갈등, 노인 디지털 사각지대 등을 통해 사회 현실을 비판해 주고 있다. 또한 도덕성과 사랑을 잃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비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에 빌런 역할이 많아서 도중에 하차하는 시청자가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도파민 중독에 빠져 하루 만에 다 본 드라마 중 하나이다.



2

살인자의 기억법 (2017, NETFLIX & TVING & WATCHA)



“살인자 vs 살인자”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알츠하이머를 얻게 되어 연쇄 살인을 멈추게 된 주인공. 하지만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 사건, 머릿속 기억은 잃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어 딸의 남자 친구가 살인마임을 직감하고 딸을 구하려고 하는데...’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알츠하이머 주인공의 시점에서 전개되기에 스스로가 지어낸 망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뚜렷한 결론이 없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게 만든 영화이다.

3

인턴 (2015, WAVVE & COUPANG PLAY)

“Experience never gets 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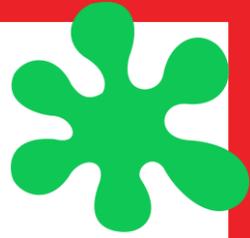
(코미디, 오피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을 때. 경험 많은 70세 인턴과 열정 많은 30세 CEO가 한 직장에서 만난다면?

현실에서 인턴은 실수투성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배우가는 단계이지만, 영화 ‘인턴’ 속 벤(인턴)은 달랐다. 7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굶은일을 도맡아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뿐더러,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젊은 CEO 줄스에게 긍정적인 멘토가 되어주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현대 사회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조금은 내려두고 쉬어가도 된다는 점 역시 알려주며 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감동받고 싶다면 영화 ‘인턴’을 추천해 드린다!

9월 24일, 출근합니다!



4 아이덴티티 (2003, TVING & WATCHA & WAVVE)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범죄, 스릴러)



"영화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공포가 시작된다"

영화 '아이덴티티'는 반전 영화로 유명하다. 하지만 단순 반전에서 오는 놀람이 아닌 잘 짜여진 구성과 소름 끼치는 스토리가 이 영화의 핵심이다. 영화와 함께 좁혀져 가는 범인에 대한 추론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 허무함보단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5 종이의 집 (2017~2021, NETFLIX)

"누군가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범죄, 느와르)



한국에 '도둑들'이 있다면, 스페인에는 '종이의 집'이 있다! 천재라고 불리는 교수와 그의 일당들이 스페인의 조폐국을 터는 이야기이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그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인물들 간의 신경전과 사랑이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어떠한 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철학, 기존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조폐국에서 직접 돈을 만들어 가져가기에 시간이 곧 돈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물과 차이점이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많은 사람의 인생 작이라고 불리지만, 분량이 꽤 길어 방학 때 처음부터 정주행해 보길 추천해 드린다.

2024

차팜인 소원나무

2024년 청룡의 해,

차약이들의 새해 소원을 모아 소원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차팜인이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여자친구 만들기!

제발요 ㅠㅠ

- 다치지 않기,
- 건강하기,
- 하루에 산레기
- 하나씩 좁기

올 1년 약학과
학생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올해도
파이팅!

연애!!!

편하게 살기

취직!

- 1. 골격근 43kg
- 2. 체지방률 11%
- 3. 3대 400

한달에
책 한 권씩
읽기

행복한 2024년 건강해지기

계획적인 공부로 여유로운
시험기간 보내기

한달에
적어도 한 권씩
책 읽기

•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실습 끝내기 ♡

• 주 3회 운동하기!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2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NH농협은행 302-1873-7787-51 (예금주: 김동현)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2751-4015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목현승
chapharmin@naver.com / 010-6476-7094

